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출국: 박안용 입국: 김점선
2.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패밀리서비스)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에 성찬식과 특별감사헌금이 있습니다.
3. 세례식: 박추자 성도
4. 신앙도서리더스클럽 모임 : 10/18 10 Am 한소연집사님댁
5. 예배 후 친교실에 식사친교가 있습니다.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105
감사 헌금	CD \$30
십일조	CD \$100
장년 출석	19명
어린이 출석	20명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인도자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시 50:23	인도자
설 교	감사, 내 삶의 전환기	인도자
세례식	세례자: 박추자 서약: 인도자 세례: 김승용목사 선포: 김승용목사 기도: 인도자	인도자
성찬식	분병: 세례교인이상 분잔: 세례교인이상 찬양: 다함께	인도자
헌 금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시편 50:23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목회자 칼럼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랑을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배꼽인사를 하는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뻐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감사하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 돌씩 생기는 나이가 되어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어찌 그리도 쉽고도 자연스럽게 나오던지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찌거기로 온통 얼룩져버린 시간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에 어렸을 적부터 감사한다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에 익숙해져버려 조금의 결핍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일쑤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받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들이 그 시기를 헤쳐 나가지만 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막상 그 힘든 시기를 끝냈을 때 감사보다는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원망과 탄식이 남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때론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외우지만 마음 속엔 진심이 없는 요새 말로 영혼이 1도 없는 주문처럼 외우고 다닐 때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하려면 그 좋은 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인지를 알 때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오직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열명 중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감사는 늘 종교적인 행위였고 영적인 행동이었으며 본능에 지지 않는 인격의 발현이며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성숙의 척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시편 50편의 말씀 통해 감사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바꾸는 관능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인간관계와 일들, 환경과 형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는 이는 그것에 올바른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주어진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는 자는 겸손의 옷을 입게 되며 지금 내가 헤쳐 나가는 시련의 터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는 자는 소망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행여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그 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228 오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통일 285)

보통으로

1. 오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나타 나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3. 주 예수 밖에 도움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 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 마 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 고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 니 주님께 모든 열매 맡기 리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 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 다
 주권능으로 힘이 솟아 서 주안에 내가 만족합니 다
 어린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 리 아멘